

# KWL & 하브루타 노트

과정명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IaaS기반 웹 서비스(React,Node,Next,MLOps)개발자 과정			훈련주차	3 주차
작성일	2024/04/19	훈련교사	공욱재	훈련생 명	최유진

- ※ 아래의 항목에 대해, 스스로의 생각과 느낀부분을 자유롭게 작성하세요.
- ※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생각 정리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세요.
- ※ 문장 완성 형태의 논술 방식으로 '다른이에게 이야기 하듯' 작성하세요.
- ※ 해당 작성본은 훈련생 평가에 활용되며, 감사 및 운영관리자 외 대외비로 다루어 처리 및 보관됩니다.

## K. 알고 있는 것

7가지의 데이터 타입에 대한 수업을 들었어. 숫자, 문자, 문자열, **bool**, 객체, 배열, 함수 ! 그리고 객체의 **key**와 **value**, 정적 할당, 동적 할당에 대해 다시한번 배웠지. 이건 또 앞으로 많이 쓸 내용이니까 별표 ! 객체와 관련된 **challenge**를 진행하면서 **indexOf()**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상기시켰어.

## W. 알고 싶은 것

## L. 알게 된 것

7가지 데이터타입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그 중 객체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었고 작성법도 알고는 있었지만, 누구에게 '객체란 무엇이다'라고 제대로 설명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이 번 수업을 통해 객체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된 시간이었어.

또한 상하위 관계를 **dot**을 통해 표현한다는 것은 알고있었지만 그걸 '점표기법'이라고 하는 법칙(?)이 따로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그리고 그것과 함께 '대괄호표기법'에 대해서도 처음 알게되었는데 점표기법과 작성법만 다른 표기법이라고 해. 처음 보는 작성법이어서 낯설었지만 이게 원래 근본 표기법(?)이래 !

수업 첫주 질문지에 초기화에 대해 아는대로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 내가 그 때 어떻게 썼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번 주에는 그 초기화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머리속에 정리하는 시간이었어. 또한 단순히 값이 들어갈 자리를 만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주소와도 연관지어서도 정의를 내릴 수 있게됐지.

그리고 객체와 배열도 연관이 된다는 걸 알게되었어 대박적 ! 사실은 배열은 객체의 하위개념이래. 배열도 객체더라고 그냥 이름이 굳이 필요없고 순서만 가지고있는 객체 ! 배열처럼 객체의 **key**가 숫자인 경우는 대괄호표기법으로만 접근 가능하대.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야 !

## 수행중인 과업

이번 주에 강사님과 나누었던 얘기들을 바탕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 중이야.

생각한게 몇가지 있는데 첫번째로는 드럼을 만들고싶어. 사실 키보드로 연주하도록 만든 드럼은 미니 프로젝트로 흔해 빠진것 같지만 나는 더 발전시켜서 압전소자로 소리의 세기도 변화시켜보고싶어. 집에서 헤드폰쓰고 아무도 모르게 나만 들을 수 있는 간이 드럼을 만들어서 연주해보고싶다. 최근에 계속 드럼배워보고싶었는데 그 꿈을 작게나마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

두번째는 여행 플래너야. 좀 흔해빠진 것 같긴한데 뭐 상관없어. 내 취향을 가득 담아서 만들거니까 세상에서 단 하나뿐 ! 내가 만든 플래너를 가지고 맘편하게 여행가고싶다.

세번째는 패션 스토어를 한군데에 모아놓은 지그재그 어플처럼 해산물이나 과일을 파는 많은 스토어들을 한군데에 모아놓은 플랫폼을 만들고싶어. 한군데에서 이곳 저곳의 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는게 지그재그의 장점이잖아. 그런걸 만들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해산물 내가 제일먼저 맛보고싶다. 오 이런건 만들면 그리드 연습 제대로 되겠다 ㅋㅋㅋ

네번째는 아이돌을 덕질하기에 딱 좋은 사이트를 만들어보고싶어. 중학교때의 기억과 추억을 되살리며 ... 너무 오래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요즘애들은 뭘보고 어떻게 덕질을 하는지 모르겠네 만약에 이걸 다시 만들게

된다면 다시 덕질을 시작해야하나 ㅋㅋㅋ

한 8가지정도 생각해봤는데 한번 윤곽도 잡아보고 해서 뭘 만들어볼까 더 고민해보고있어.

#### 학습자 성찰

이번주부터는 진짜 코딩(?)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 너무나 설레는 시작이야 ! 앞으로가 은근 기대가 되네 신기해.

이번주에 감사님하고 나눈 얘기는 '내가 만들고 싶은 것'에 관련된 내용이었어. 사실 수업중에도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이지만 아직 나와는 먼 얘기라고 생각하고있었거든. 안일했나 싶기도하고 .. 언제 시작해도 좋은 건데 말이야. 당연히 기왕이면 일찍 시작하는게 당연히 좋은거고.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생각한지 하루만에 많은 것들이 계속 떠오르더라구 비록 터무니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시간을 가져본거에 의미를 두고 또 결과적으로도 많은 걸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란걸 스스로 알게되었잖아. 그러니 너무 의미있는 시간이었어. 내가 생각해본 것들을 진짜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걸 느낄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졌네. 긍정적인 감정일 것이란건 분명해. 분명 좋은 시작이니까 고민하고 망설이지말자 !

#### 강사 코칭 (강사 작성)